

# 周作人, 錢鍾書의 文學史的 논쟁과 그 의의

- 『中國新文學的源流』를 둘러싼 인식론적 차이를 중심으로 -

한지연\*

##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논쟁의 핵심: '言志'와 '載道' 사이에서
  - 1) 문학으로의 회귀를 통한 자아발현
  - 2) 文學史的 事實에 대한 현상적 비평
3.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중국 신문학의 원류』(中國新文學的源流)<sup>1)</sup>는 선젠스(沈兼士, 1887-1947)<sup>2)</sup>의 요청을 받아 1932년 2월부터 4월까지 푸런대학(輔仁大學)에서 진행된 저우쥘런(周作人, 1885-1967)의 강연원고<sup>3)</sup>이며, 덩광밍(鄧廣銘, 1907-1998)<sup>4)</sup>

\* 국립한밭대학교 중국어과 강사

- 1) 본 논문에서는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에서 출간한 단행본(1995)을 1차 문헌으로 삼고자 하며, 이하 편명(篇名)과 쪽수만 명기하고자 한다.
- 2) 저명 언어학자이자 교육가이며, 선인모(沈尹默, 1883-1971)의 동생이기도 하다. 오사(五四) 신문학운동(新文學運動) 때 신시(新詩) 창작을 주장하였으며, 중일전쟁(中日戰爭) 시기 때 『魯迅全集』의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 3) 당시 저우쥘런은 '신문학이란 무엇인가'(什麼是新文學)이라는 주제로 여덟 차례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간된 『중국 신문학의 원류』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第一講 關於文學之諸問題); 2. 중국문학의 변천 (第二講 中國文學的變遷); 3. 청대문학의 반동 (상): 팔고문 (第三講 清代文學的反動[上]—八股文); 4. 청대문학의 반동 (하): 동성과 고문 (第四講 清代文學的反動[下]—桐城派古文); 5. 문학혁명운동 (第五講 文學革命運動); 부록 1 팔고문을 논함 (附錄

이 강연내용을 기록<sup>5)</sup>하여 같은 해 9월 베이핑 인문서점(北平人文書店)에서 초판이 발간, 1934년 3월에 교정 작업을 거쳐 재판이 발간되었다.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글의 주요 요지는 중국 신문학의 '근원'(源流)에 대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저우쥘런은 신문학의 근원을 논함에 있어 종래의 진화론적 사관(史觀)에 입각한 것이 아닌, '명말(明末)'로 거슬러 올라가 탐색했다는 것이다. 즉, 저우쥘런은 당시 신문학 연구의 주를 이루었던 이론과 담론의 틀에서 탈피, 오히려 '전통'으로의 '회귀'를 통해 신문학의 '근원'을 논하였다. 신문학운동을 명말의 문학운동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그 연원을 살펴본 저우쥘런의 문학사관(文學史觀)은 당시 1930년대 문단과 평론가들의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중국문학사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신문학의 근원을 새롭게 풀어냈다.”<sup>6)</sup>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으며, 혹자는 저우쥘런이 제기한 ‘시언지’(詩言志)와 ‘문이재도’(文以載道)의 주장에 대해 역사의 순환성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사실(史實)을 연결하여 신문학의 근원을 밝혔다는 점<sup>7)</sup>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었다. 이 외에도 부정적인 평가<sup>8)</sup> 역시 존재하였는데, 일부 평론가는 저우쥘런이 공

一 論八股文); 부록 2 선치우 선집『근대산문초』목록(附錄二 沈啓無選輯近代散文鈔目錄)

4) 중국 저명 역사학자이며, 자(字)는 공삼(恭三)이다. 1936년에 베이징대 역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베이징대 문과연구소(文科研究所), 역사학과 및 푸단대학(復旦大學) 역사학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주요 저서로는 『辛稼軒年譜』, 『稼軒詞編年箋註』, 『宋史職官志考證』 등이 있다.

5) 이에 관해서는 『중국 신문학의 원류』 머리말(小引)을 참고할 수 있다. (“到了講完之後, 鄧恭三先生却拿了一本筆記的草稿來叫我校閱, 這頗出於我的意料之外, 再看所記錄的不但絕不錯誤, 而且反把我所亂說的話整理得略有次序, 這尤其使我佩服。”) 周作人著, 『中國新文學的源流』小引, 1쪽.

6) “於此不獨爲中國文學史得一新觀點, 且爲中國新文學源流得一新解。” 佚名, 「中國新文學的源流」, 『大公報·文學副刊』, 1932年9月26日.

7) “周作人氏在其《中國新文學的源流》中指出我國文學史上有兩種思潮之交互循環: 其一爲‘詩言志’之觀念, 其二爲‘文以載道’之觀念. 吾人若將中國文學史分爲下列諸時期: 一、晚周; 二、兩漢; 三、魏晉六朝; 四、唐; 五、五代; 六、兩宋; 七、元; 八、明; 九、明末; 十、清; 十一、民國, 則單數諸朝悉爲言志派當盛之世, 雙數諸朝悉爲載道派當盛之世. 按諸史實, 信不誣也.” 張蔭麟, 「傳統歷史哲學之總結算」, 『國風』第二卷第一期, 1933年1月.

안과와 경릉과를 추켜세웠던 동기가 다름 아닌 “신문학운동에 공로를 세운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문단을 독점하려고 한다.”<sup>9)</sup>라고 비난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저우쥘런의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대해 언급한 글들 중에서 첸중수(錢鍾書, 1910-1998)의 서평 『중국 신문학의 원류』<sup>10)</sup>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구체적 연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우쥘런과 첸중수는 중국 현대문학사 및 학술사상사에서 각자의 입지가 명확한 인물들이자, 문학과 학술 영역에서 그들이 각자 추구했던 지향점은 상당히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신문학의 원류』를 다시금 주목하여 저우쥘런과 첸중수의 문학사관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겠다.

둘째, 저우쥘런 및 『중국 신문학의 원류』의 지명도는 높은 바, 국내 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 성과<sup>11)</sup>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첸중수의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대한 서평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sup>12)</sup> 『중국 신문학의 원류』를

8) 타오밍즈(陶明志)가 엮은 『周作人論』(上海, 北新書局, 1934)에는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대한 평론 다섯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즈잔(陳子展)의 글과 첸중수의 서평이 이에 해당한다.

9) 陳子展, 「不要再上知堂老人的當」, 『新語林』第二期, 1934年7月20日. 이 글은 陶明志編, 『周作人論』(上海, 北新書局, 1934) 172-177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10) 첸중수가 청화대학(淸華大學) 재학 시절에 ‘中書君’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서평이며, 『신월월간』(新月月刊) 제4권 제4기(1932년 11월 1일)에 발표하였다. 이 글은 『中國新文學的源流』(周作人著,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81-87쪽, 『周作人論』(陶明志編, 上海, 北新書局, 1934) 154-162쪽 및 『錢鍾書集』(北京, 三聯書店, 2002) 242-252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첸중수의 원문은 일괄적으로 『錢鍾書集』을 판본으로 삼고자 한다.

11) 국내에서 저우쥘런과 관련된 소논문은 약 30여 편 정도이며, 저우쥘런의 문학관에 대해 논한 논문으로는 신흥철의 「5·4 초기 주작인의 현실인식과 문예사상」(『중어중문학』 제12집, 1990), 김미정의 「周作人の 전통문학관—‘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을 중심으로」(『중국문학』 제22집, 1994), 이제우의 「1930년대 ‘小品文論爭’을 통해서 본 晚明小品의 인식과 평가」(『중국연구』 18, 1996), 김경석의 「文學의 功利와 無用: 周作人の 文藝觀에 대한 小考」(『중국인문과학』 제32호, 2006), 홍준형의 「文學에서 ‘文章’으로: 周作人の 문학 인식에 대한 일고찰」(『중어중문학』 제48집, 2011) 등을 들 수 있다.

논함에 있어 첸중수의 서평은 중국 신문학을 둘러싼 문학사적(文學史的)인 논쟁으로 이어졌던 바, 상기 논쟁이 당시 문단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전문적인 고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첸중수의 서평 『중국 신문학의 원류』는 명말 문학으로부터 신문학의 근원을 탐색했던 저우쥘런의 문학사관에 대해 반박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첸중수의 이러한 반박은 소위 일컫는 문인상경(文人相輕)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자, 민국(民國) 시기 비평 담론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바, 상호 연구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비록 저우쥘런의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대한 논의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진행되었지만, 신문학의 ‘근원’ 문제를 둘러싼 첸중수와 저우쥘런의 논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저우쥘런의 텍스트 분석이 선행되어야지만 양자(兩者)의 상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저우쥘런과 첸중수 텍스트의 상호 독해를 통해 양자의 논점과 사유를 읽어냄으로서 당시 신문학을 둘러싼 두 사람의 논쟁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를 통해 저우쥘런과 첸중수 문학사관의 진면모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 2. 논쟁의 핵심: ‘言志’와 ‘載道’ 사이에서

### 1) 문학으로의 회귀를 통한 자아발현

『중국 신문학의 원류』의 머리말(小引)<sup>13)</sup>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2) 한지연, 「錢鍾書의 비평적 글쓰기와 『管錐編』 연구를 위한 小考」(『중국현대문학』 제67호, 2013)에서 첸중수의 학술연구방법과 비평사상을 입증하고자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다.

13) 저우쥘런은 1932년(민국 21년) 7월 26일에 베이핑(北平) 서북성(西北城)에서 해당 머리말을 작성하였다.

이 강연의 아이디어는 대체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말한 만들어냄이라 함은 새로운 발명이 결코 아닌 바, 특허로 등록하고자 한들 단지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나의 의견은 결코 서양의 어떤 아무개의 논문에 근거하였거나 혹은 일본의 어떤 아무개의 책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응용한 것이다. 그렇다면周公(周公)과 공자(孔子) 등의 성인(聖人)들이 전수한 것인가? 이 역시 그렇지 않다. **공안파(公安派)의 문학 역사 관념은 내가 정말 감명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초보적 아이디어는 공안파 문집(※三袁[袁宗道, 袁宏道, 袁中道]文集)을 읽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문학의 주의(主義) 혹은 태도나, 그들이 말한 대부분은 문체(文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sup>14)</sup>

상기 인용문에는 중국 신문학의 ‘근원’을 논함에 있어 ‘전통문학’이 중국 신문학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라는 저우쥬런의 사상적 기저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문학에 대한 저우쥬런의 이러한 인식은 당시 신문학의 주류 담론과는 사뭇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저우쥬런 역시 동시대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서양 학문과 문화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본 유학은 그의 문학과 학문, 심지어 그의 삶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바<sup>15)</sup>, 이러한 경험과 심득(心得)을 통해 소위 ‘인간의 문학’(人的文學)<sup>16)</sup>,

14) “這講演裏的主意大抵是我杜撰的。我說杜撰，並不是說新發明，想註冊專利，我只是說無所根據而已。我的意見并非依據西洋某人的論文，或是遵照東洋某人的書本，演釋應用來的。那麼是周公孔聖人夢中傳授的嗎？也未必然。公安派的文學歷史觀念確是我所佩服的，不過我的杜撰意見在未讀三袁文集的時候已經有了，而且根本上也不盡同，因為我所說的是文學上的主義或態度，他們所說的多是文體的問題。”周作人著，『中國新文學的源流』小引，2쪽.

15) 만청(晩淸) 시기 중국인의 유학사(留學史)를 언급할 때면 저우씨(周氏) 형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두 사람이 뒷날 학술과 창작 부문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과, 당시 외국 문명과 접촉할 때 그들이 견지했던 가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서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루쉰(魯迅) 연구자인 키야마 히데오(木山英雄)는 “중국의 문학가 중에서 저우쥬런처럼 일본과 일본문화와의 관계가 긴밀했던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다(在中國的文學家之中，還找不到像周作人那樣與日本及日本文化關係如此緊密的人.)”라고 저우쥬런과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언급한 적이 있다. 쉰위지움, 김영문·이시할 옮김, 『루쉰과 저우쥬어런』, 서울, 소명출판, 2005, 61쪽 및 [日] 木山英雄著, 趙京華編譯, 『文學復古與文學革命——木山英雄中國現代文學思想論集』, 北京,

‘평민의 문학(平民文學)’, ‘인생을 위한 문학(爲人生的文學)’으로 일컫는 ‘인도주의(人道主義)’의 체계와 자신만의 문학사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저우쥬런이 논한 중국 신문학의 ‘근원’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는데, 『중국 신문학의 원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다른 아닌 ‘언지(言志)’와 ‘재도(載道)’이다. “타인의 뜻을 말하는 것이 도(道)를 전달하는 것이고, 자신의 도(道)를 전달하는 것이 뜻을 말하는 것이다.”<sup>17)</sup>라고 했듯이, 저우쥬런에게 있어 ‘언지’와 ‘재도’는 소위 전통문학에서 추구했던 문학 관념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언지’와 ‘재도’는 중국문학의 ‘흐름’을 읽어 내고 신문학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학문적’ 기저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문학에 대한 그의 ‘정서적’ 취향과 ‘사상적·심리적’ 기저였던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전자(前者)의 경우 ‘언지’와 ‘재도’라는 두 가지 흐름(潮流)의 상호 ‘기복(起伏)’이 중국의 문학사를 조성<sup>18)</sup>했다는 점인데, 이는 저우쥬런 문학사관의 핵심임과 동시에 『중국 신문학의 원류』를 아우르는 핵심인 바,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北京大學出版社, 2004, 351쪽 참고.

- 16) 후스(胡適, 1891-1962)는 『중국신문학대계·건설이론집』(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의 서문(導言)에서 저우쥬런의 ‘인간의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07년 12월에 『신청년』 5권 6호에 저우쥬런 선생의 「인간의 문학」이 발표되었다. 이는 당시 문학 내용 개혁에 관한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었다(次年(七年)十二月裏, 《新青年》(五卷六號)發表周作人先生的《人的文學》。這是當時關於改革文學內容的一篇最重要的宣言。)” 胡適編選, 『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3, 29쪽.
- 17) “言他人之志即是載道, 載自己的道亦是言志。” 周作人編選, 『中國新文學大系·散文一集』導言,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3, 11쪽.
- 18) “這兩種潮流的起伏, 便造成了中國的文學史。” 周作人, 「中國文學的變遷」, 『中國新文學的源流』,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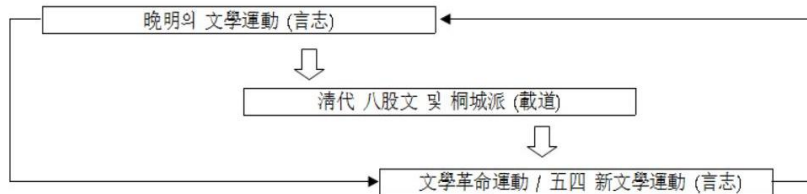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나타난 저우쥬런의 문학사관

명말의 공안파와 경릉파의 문학운동으로 인해 청대(清代) 문단의 반동이 일어났으며, 청대에 이르러서는 명말 문학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오사(五四) 신문학운동이 발생한 바, 중국문학의 이러한 변천과정을 논함에 있어 저우쥬런은 명말 문학은 오사 신문학운동의 ‘근원’(來源)이자, 청대의 문학은 오사 신문학운동의 원인<sup>19)</sup>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후자(後者)는 명말 문학을 통해 신문학의 ‘근원’을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저우쥬런의 내면세계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한 내면세계는 명대(明代) 문화에 대한 저우쥬런의 개인적 취향과 현실 세계에 대한 그의 입장과 인식을 의미한다. 소위 ‘소통’과 외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면세계’의 반영을 중시한 ‘시언지’(詩言志) 본연의 기능적 측면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는 저우쥬런 개인의 ‘주관적’ 의식의 반영이자, 지적(知的)-문화적 소양이 농축된 저우쥬런 특유의 ‘은유적’ 세계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저우쥬런의 이러한 의식과 세계관은 공안파 문학에 대한 평가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단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명대의 문예 미술은 비교적 활기찼고, 문학에서도 혁신의 기운이 가득했다. 공안파 사람들은 고문(古文)의 정통을 무시할 수 있었으며, 서정의 태도로 모든 글을 지었다. 비록 후대의 비평가들이 거칠고 허술하다며 배척했지만, 실은 **진실한 개성의 표현**이었으며, 그 가치는 경릉파보다 한 수 위였다.

19) “我們可以這樣說，明末的文學，是現在這次文學運動的來源，而清朝的文學，則是這次文學運動的原因。”周作人，「清代文學的反動（上）——八股文」，《中國新文學的源流》，30쪽.

이전의 문인들이 저작에 대한 태도는 이원적(二元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은 오히려 **일원적(一元的)**이었다. 이 점은 지금의 글 쓰는 사람들과 일치한다.……이전의 사람들은 글은 “도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문장에는 오히려 글을 지음으로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지금은 또 통일시켜 **글을 쓰거나 읽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두 마음을 달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도(道)를 전하거나 듣기도 하는 것이다.** 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사람들의 문학적 의견은 대체적으로 이리하다고 여겨진다. 이 역시 명대의 신문학가의 생각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sup>20)</sup>

상기 인용문에는 공안파 성령설(性靈說)의 “오직 본성을 서술하고, 격식에 구속받지 않는다.”(獨抒性靈, 不拘格套), “팔에 맡기고 입에 맡겨 자유로이 하지만 모두 율도에 맞는다.”(信腕信口, 皆成律度)<sup>21)</sup>의 핵심 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저우쥬런은 공안파로의 ‘회귀’를 통해 문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에서 탈피하고 창작에 있어 격조와 풍격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본성과 영혼, 즉 ‘성령’을 담아내는 글쓰기를 주장했던 그들의 문학사상에서 ‘현대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저우쥬런에게 있어 과거로의 회귀는 문학 본연으로의 회귀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명말 문학은 고금(古今)의 문학을 아우르고 오사 신문학의 근원을 탐색하는데 있어 유효했던 하나의 참조계(參照係)였던 바, 그는 오사 문학혁명운동과 명말 신문학운동 간의 관계에서 모종의 유사성과 상통성(相通性)<sup>22)</sup>을 발견하였다.

20) “明代的文藝美術比較地稍有活氣，文學上頗有革新的氣象，公安派的人能够無視古文的正統，以抒情的態度作一切的文章，雖然後代批評家貶斥它爲淺率空疏，實際却是眞實的個性的表現，其價值在竟陵派之上。以前的文人對於著作的態度，可以說是二元的，而他們則是一元的，在這一點上與現代寫文章的人正是一致。……以前的人以爲文是‘以載道’的東西，但此外另有一種文章却是可以寫了來消遣的；現在則又把它統一了，去寫或讀可以說本於消遣，但同時也就是傳了道了，或是聞了道。除了還是想要去以載道的老少同志以外，我想現在的人的文學意見大抵是這樣，這也可以說是與明代的新文學家的意思相差不遠的。” 周作人，『『雜拌兒』跋』，鍾叔河編，『周作人文選(1898-1929)』，廣州，廣州出版社，1995，524쪽.

21) 袁宏道，『『雪濤閣集』序』，[明]江盈科纂，黃仁生輯校，『江盈科集』(一)，長沙，岳麓書社，2008，4쪽.

22) 저우쥬런의 이러한 관점은 명말 신문학운동의 ‘계승’이자 명말 문학에 대한 일종의 ‘호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쑤위 지음, 김영문·이시환 옮김, 『루선과 저우쥬어런』, 서



그 당시(명말을 가리킴)의 문학운동과 민국 이래의 이번 문학혁명운동과는 꽤나 유사한 점이 있다. 두 차례(‘명말’과 ‘민국’의 문학운동을 의미함)의 주장과 추세는 거의 모두 일치한다. 더욱 신기한 것은 많은 작품들 역시 모두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후스(胡適), 빙신(冰心), 쉬즈모(徐志摩)의 작품은 공안파를 많이 닮아 맑고 투명하지만, 맛은 그다지 깊지 않다. 이는 마치 수정구슬과도 같은데, 비록 밝고 아름답지만 자세히 오랫동안 보고 있노라면 다소 맛이 떨어짐을 느끼게 된다. 경릉파와 많이 닮은 이들은 위평보(俞平伯)와 폐이명(廢名)이다. 그들의 작품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이 바로 그들의 장점이다. 똑같이 백화(白話)로 글을 썼는데도 그들이 써낸 글들은 전혀 달라 투명한 수정구슬 같지 않으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지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들의 유사함은 완전히 무의식중의 일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말과 현재(민국 이래의 문학혁명운동을 가리킴) 두 차례의 문학운동의 추세가 어떻게 서로 같은지 발견할 수 있다.**<sup>23)</sup>

명말 문학운동과 오사 문학혁명운동의 유사함을 ‘무의식중의 일치’라고 언급한 저우쥘런의 이러한 주장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명말과 현대의 두 시대를 아우르는 접점을 의미하는데, 저우쥘런은 명말의 신문학과 현대의 신문학이 공유하고 있는 ‘현대적 정신’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 정신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승인, 개성의 존중, 이성과 과학에 대한 믿음, 자유와 평등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교적 도리로 대표되는 절대관념에 대한 도전, 인간의 발견에 수반하는 인간의 감성과 개성에 대한 존중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sup>24)</sup> 주지하듯이 당시 명말의 사회적 혼란기는 역으로 지식인들을 각성시켜

을, 소명출판, 2005, 434쪽 참고.

23) “那一次的文學運動，和民國以來的這次文學革命運動，很有些相像的地方。兩次的主張和趨勢，幾乎都很相同。更奇怪的是，有很多作品也都很相似。胡適之，冰心和徐志摩的作品，很像公安派的，清新透明而味道不甚濃厚。好像一個水晶球，雖是晶瑩好看，但仔細的看多時就覺得沒有多少意思了。和竟陵派相似的是俞平伯和廢名兩人，他們的作品有時很難懂，但這難懂却正是他們的好處。同樣用白話寫文章，他們所寫出來的，却另是一樣，不像透明的水晶球，要看懂必須費些功夫才行。然而更奇怪的是俞平伯和廢名並不讀竟陵派的書籍，他們的相似完全是無意中的巧合。從此，也更可見出明末和現今兩次文學運動的趨向是相同的了。” 周作人，「中國文學的變遷」，《中國新文學的源流》，28쪽.

그들의 사유 활동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배타성을 허물어뜨리는 데도 일조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처럼 개성을 존중했던 명말의 사회사조는 문학의 해방에 일정한 의지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통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실현하는 표현방식으로 나타났던 바<sup>25)</sup>, 이를 통해 저우쥘런은 공안파의 문학운동에서 사상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현대적’인 새로움을 발견한 것이다.

상술한 논의에서 우리는 저우쥘런의 문학사관이 지닌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신문학의 탄생과 발전을 진화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논의했던 문학혁명론과는 사뭇 상이한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번의 문학혁명운동자가 백화를 쓸 것을 주장한 데 대해 명말의 문학운동자는 결코 그러한 주장은 없었으며, 그들의 문장은 여전히 고문으로 쓰였는데, 어찌하여 양자가 같을 수 있는가 하며 의혹을 품는다. 나는 오늘날의 백화를 쓰자는 주장 역시 단지 명말의 여러 사람들의 주장 속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의견은 후스 선생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내 의견은 중국의 문학은 줄곧 일정한 목표와 방향이 없었던 바, 마치 한 줄기의 강처럼 그 흐름을 방해하는 힘을 만나면 물살의 방향에 변화를 일으키고, 또 만나면 또 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이가 시언지로서는 너무 무료하다고 여긴다면 문학은 곧 재도의 길로 들어서고, 또한 어떤 이가 재도로서는 너무 무료하다고 여긴다면 곧 다시 언지의 길로 들어선다.……나는 고문과 백화 사이에는 결코 엄격한 한계가 없다고 여기기에 그것의 사활(死活)도 나누기가 곤란하다고 본다. 문자의 사활은 단지 그것의 배열법에 의해 다른 것이지, 옛 것의 여부와 그것의 사활은 문학 자체에서는 결코 분명한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sup>26)</sup>

24) 김미정, 「周作人の 전통문학관: ‘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22집, 1994, 309쪽.

25) 한길사 편집실 엮음, 『가자 고전의 숲으로』, 파주, 한길사, 2008, 336쪽.

26) “有人疑惑：今次的文學革命運動者主張用白話，明末的文學運動者並沒有如此的主張，他們的文章依舊是用古文寫作，何以二者會相同呢？我以為：現在的用白話的主張也只是從明末諸人的主張內生出來的。這意見和胡適之先生的有些不同。……我的意見是以爲中國的文學一向並沒有一定的目標和方向，有如一條河，只要遇到阻力，其水流的方向即起變化，再遇到即再變。所以，如有人以爲詩言志太無聊，則文學即轉入‘載道’的路，如再有人以爲‘載道’

중국의 문학사를 논함에 있어 이를 한 줄기의 강에 비유했던 저우쥬런의 주장에는 진화론적 역사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내포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 신문학의 탄생과 발전을 진화론적 발전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올 수 있는 급격한 사상적 경직성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저우쥬런에게 있어 역사는 직선적인 것이 아닌 '순환'하면서 발전하는 '통합적'인 것<sup>27)</sup>이었던 바, 문학의 발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였던 것이다.

저우쥬런이 논한 신문학의 '근원'은 동서고금의 문화의 '원류'들을 정리하면서 소위 '현대성'의 지적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추슬러 나가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의 '유기성' 속에서 유연하게 사유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긴 바, 여기에는 저우쥬런만의 문인적 취향과 독창적 안목뿐만 아니라, 보다 새로운 문화의식으로 주류(主流) 문화의 감성 전통을 발굴해내어 이를 모종의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명확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학의 '근원'을 둘러싸고 첸중수는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대한 서평을 통해 저우쥬런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 2) 文學史의 事實에 대한 現象적 批評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우쥬런의 『중국 신문학의 원류』가 세간에 등장한 이후 당시 문단 및 평론계(評論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불러일으킨 바, 본 장에서는 첸중수의 서평 「중국신문학의 원류」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太無聊，則即再轉‘言志’的路。……我以爲古文和白話並沒有嚴格的界限，因此死活也難分。所以文字的死活只因它的排列法而不同，其古與不古，死與活，在文學的本身並沒有明瞭的界限。”周作人，「中國文學的變遷」，『中國新文學的源流』，66쪽.

27) “假如要追尋下去，這到底是哪裏的來源，那麼我只得實說出來：這是從說書來的。他們說三國什麼時候，必定首先喝道：且說天下大勢，合久必分，分久必合。我覺得這是二句很精的格言。我從這邊建設起我的議論來，說沒有根基也是沒有根基，若說是有，那也就很有根基的了。”周作人著，『中國新文學的源流』小引，2-3쪽. 선행연구에서는 저우쥬런의 이러한 관점을 가리켜 '순환적 역사관', '과거 지향적 역사관'이라 일컬었다. 黃修己著, 『中國新文學史編纂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31쪽 참고.

한다.

첸중수는 그의 서평에서 저우쥘런의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대해 “작지만 귀한 책”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독자들에게 체계적인 사실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신문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sup>28)</sup>고 호평하였으나, ‘기본 개념과 사실’<sup>29)</sup>이라는 측면에서 저우쥘런의 문학사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반론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안파와 경륜파의 문학운동과 오사 문학혁명운동 간의 ‘일치성’ 여부 둘째, ‘언지’와 ‘재도’의 기준으로 문학의 갈래를 나눈 점 셋째, 공안파를 내세워서民国 시기의 문학혁명과 비교한 저우쥘런의 관점 넷째, ‘재도’의 모든 문학은 윤리에 따르는 것(遵命)이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반론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저우쥘런 『중국 신문학의 원류』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이론<sup>30)</sup>, 즉 ‘언지’와 ‘재도’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첸중수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저우쥘런 선생은 문학을 ‘재도’와 ‘언지’로 나누었는데 이런 분류법은 원래 그 자체로 틀리지 않다. 이는 토머스 드퀸시(Thomas De Quincey)가 문학을 ‘지식의 문학’(literature of knowledge)과 ‘감동의 문학’(literature of power)으로 나눈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저우 선생이 제창한 ‘언지’는 전통적 의미의 ‘재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 있고, 이는 저우 선생이 주장한 문학의 자율성(文學自主論)의

28) “這是一本小而可貴的書，正如一切好書一樣，它不盡給讀者以有系統的事實，而且能引起讀者許多反想。” 中書君(錢鍾書), 『中國新文學的源流』, 『寫在人生邊上: 人生邊上的邊上: 石語』, 北京, 三聯書店, 2002, 247쪽. 이하 편명(篇名), 권명(卷名)과 쪽수만 명기함.

29) “我的方法，只是把本書全部地接受，而於其基本概念及事實上，加以商榷，或者說是補充；鎖碎的地方，都存而不論。” 上同.

30) 첸중수는 이를 가리켜 문학의 ‘자율성’(the autonomy of literature)이라고 명명하였다. (“對於本書理論上有不同意的地方，例如，作者純粹的‘爲文學而文學’的見解——我名之曰文學的自主論(Autonomy)。亦無須討論，因爲這不是本書的重心所在。”) 上同.

**결과인 셈이다.** 이러한 문학의 자율성은 원매(袁枚)의 「答友人論文第二書」에서도 저우 선생처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저우 선생은 소위 ‘문이재도’(文以載道)의 전통과 ‘시이언지’(詩以言志)를 문학사에서 서로 기복(起伏)하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에 불과하다.**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모두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dialectic movement)의 양상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우 선생이 ‘문이재도’와 ‘시이언지’의 전통에 **입각하여 그 갈래를 나누었다는 점은 여전히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여겨지며, 또한 이는 중국 전통의 문학비평에 관한 큰 문제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sup>31)</sup>

첸중수는 중국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에 근거하여 소위 ‘문장’과 ‘문체’의 전통이 배제된 ‘이분법적’이고 ‘단절적’인 태도를 견제하는 문학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첸중수의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전통적인 문학비평이 남긴 ‘역기능’을 그 출발점을 삼고 있는데, 그는 전통 문학비평이 지닌 정밀함과 세밀함은 문학 본연의 감성적인 측면을 좀 더 높은 단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미학적 측면의 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평 자체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인상 평가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일종의 ‘모순’이라고 여기고 있다.<sup>32)</sup>

이에 근거하여 첸중수는 중국 전통의 문학비평에서의 ‘언지’와 ‘재도’는 서로 어긋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닌,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명제라고 역설하고 있다.

전통의 문학비평에서 “시이언지”와 “문이재도”는 저우 선생과 여타 비평가들이

31) “周先生把文學分爲‘載道’和‘言志’。這個分法本來不錯，相當於德昆西所謂 literature of knowledge 和 literature of power。至於周先生之主‘言志’而絀‘載道’，那是周先生‘文學自主論’的結果。這種文學自主論袁枚在他一首《答友人論文第二書》裏講得差不多有周先生那樣的清楚，我們毋庸討論。只是，周先生以‘文以載道’和‘詩以言志’，分爲文學史上互相起伏的兩派，這原是很普通的說數，研究歷史的人，都知道有這種 dialectic movement。不過，周先生根據‘文以載道’，‘詩以言志’來分派，不無可以斟酌的地方，并且包含著傳統的文學批評上一個很大的問題。” 上同，248-249쪽.

32) 한지연, 「錢鍾書의 비평적 글쓰기와 『管錘編』 연구를 위한 小考」, 『중국현대문학』 제67호, 2013, 42-43쪽 참고.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어긋나는 명제가 아닌 듯하다. 전통의 비평에서는 “문학”이라는 종합적 개념은 없었으며, 단지 “시”(詩), “문”(文), “사”(詞), “곡”(曲) 등 사소한 분류만 있었을 뿐이다.……“문이재도”의 “문”은 통상적으로 “고문(古文)” 혹은 “산문(散文)”을 가리킬 뿐, 근세(近世)에서 일컫는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는 게 아니다.……시는 본래 “고문”의 여사(餘事)이며, 장르(genre)적으로 비교적 저급하다. 그 목적은 주관적인 정서의 표현, 즉, ‘언지’에 있을 뿐이지 “문”처럼 커다란 사명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도(道)”에 관해서는 “실을(載)” 수 있을 뿐이며, 주관적인 감정은 정서가 담긴 시와 같이 “억제”(control)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태도의 어긋남은 내가 봤을 때 편파적인 진리가 없는 게 아니며, 전통의 문예비평에서 본래 병행하는 것이지 “갈래”와는 상관이 없다.<sup>33)</sup>

상기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첸중수는 ‘문체’의 전통과 개별적 특징을 경시한 채 ‘언지’와 ‘재도’의 두 가지 흐름의 상호 충돌이 중국문학사를 이루었다는 저우쥬런의 이원론적 견해<sup>34)</sup>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sup>35)</sup> 이러한 연유에는 첸중수가 ‘총체적’ 사유방식<sup>36)</sup>과 ‘통섭적’ 접근방법<sup>37)</sup>에서 기

33) “詩以言志”和“文以載道”在傳統的文學批評上，似乎不是兩個格格不相容的命題，有如周先生和其他批評家所想像。在傳統的批評上，我們沒有‘文學’這個綜合的概念，我們所有的只是‘詩’、‘文’、‘詞’、‘曲’這許多零碎的門類。……‘文以載道’的‘文’字，通常只是指‘古文’或散文而言，並不是用來涵蓋一切近世所謂‘文學’；……詩本來是‘古文’之餘事，品類 (genre) 較低，目的僅在乎發表主觀的情感——‘言志’，沒有‘文’那樣大的使命。所以我們對於客觀的‘道’只能‘載’，而對於主觀的感情便能‘詩者持也’地把它‘持’ (control) 起來。這兩種態度的分歧，在我看來，不無片面的真理；而且它們在傳統的文學批評上，原是并行不背的，無所謂兩派’。”錢鍾書，「中國新文學的源流」，『寫在人生邊上·人生邊上的邊上·石語』，249-250쪽.

34) 이와 관련하여 주즈칭(朱自清, 1898-1948) 역시 저우쥬런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現在有人用‘言志’和‘載道’標明中國文學的主流，說這兩個主流的起伏造成了中國文學史。‘言志’的本義原跟‘載道’差不多，兩者并不衝突，現時却變得和‘載道’對立起來。”) 朱自清著，「詩言志辨」序，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4.

35) 첸중수는 「중국 신문학의 원류」서평 이외에도 자신의 다른 글들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是以‘文以載道’與‘詩以言志’，苟以近世‘文學’之誼說之，兩言抵牾不相容，而先民有作，則并行不背焉。”錢鍾書，「中國文學小史序論」，『寫在人生邊上·人生邊上的邊上·石語』，96쪽；“我們常聽說中國古代文評裏有對立的兩派，一派要‘載道’，一派要‘言志’。事實上，在中國舊傳統裏，‘文以載道’和‘詩以言志’主要是規定各別文體的職能，并非概括‘文學’的界說。”錢鍾書，「中國詩與中國畫」，『七綴集』，4쪽)

인하는데, 그는 비교적 수평적 입장에 서서 이질적인 학문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打通)하여 합일점을 찾고자 했다. 첸중수의 이러한 사유방식은 그의 문학창작 뿐만 아니라 문학기평 영역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sup>36)</sup>, 그에게 있어 문체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각기 상이한 문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공통성’이 존재<sup>39)</sup>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문학사적 현상을 논함에 있어 저우쥘런과 비교했을 때 첸중수는 ‘시이

- 36) 소위 ‘상호 의존적’(一多相依), ‘일관성’(一貫)과 ‘다양성’(萬殊), ‘긍정과 부정의 상호 작용’(正反依待) 등의 용어들은 동서와 고급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첸중수의 ‘총체적’ 사유방식의 특징을 의미한다. 陳子謙著, 『錢學論』, 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616쪽 참고.
- 37) 첸중수의 이러한 사유방식은 ‘정반합’(正反合)의 합리적인 이성에 의거하여 학문의 궁극적인 ‘지향점’(志)을 추구하는 변증법적 메커니즘(dialectically mechanism)의 특성과 흡사한데, 이는 첸중수의 학문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해석학적 순환’(闡釋之循環)과도 연관지어 논의가 가능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한지연, 「통섭의 시학 - 錢鍾書『詩可以怨』의 비교문학적 접근」, 『한중언어문화연구』제42집, 2016, 489-490쪽을 참고할 수 있다.
- 38) 첸중수의 부친 첸지보(錢基博, 1887-1957)의 저서 『現代中國文學史』(上海, 世界書局, 1933 초판) 下編 ‘新文學’ 세 번째 챕터 ‘白話文’ 부분에서 저우쥘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었는데,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린위탕(林語堂)은 저우쥘런의 『신문학의 원류』에 따라 원중량(袁中郎)의 ‘성령’설을 취하여 ‘언지파’라고 불렀다. 아! 본래 다름이 없는데, 터무니없으며 온 세상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구나! 십 수 년 동안 성인(聖人)을 부정하여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새롭다 여기고, 서구화된 국어를 계승하여 새롭다 여기고, 현재는 또 옛 법을 배워 새 것으로 여긴다. 무릇 사람이란 새 것을 좋아하면서도 옛 것도 즐기는 게 십 년이 멀다하고 이처럼 순환하며, 앎과 모름은 모두 시대의 추세에 신속히 휩쓸리니, 남은 거라고는 우스갯소리와 속죄하는 말들뿐이다. (“語堂又本周作人《新文學源流》, 取袁中郎‘性靈’之說, 名曰‘言志派’。嗚呼, 斯文一脉, 本無二致; 無端妄談, 誤盡蒼生! 十數年來, 始之非聖反古以爲新, 繼之歐化國語以爲新, 今則又學古以爲新。人情喜新, 亦復好古, 十年非久, 如是循環, 知與不知, 俱爲此‘時代洪流’疾卷以去, 空餘戲狎懺悔之詞也。” 錢基博著, 『現代中國文學史』, 長沙, 岳麓書社, 1986, 506쪽) 저우쥘런에 대한 첸지보와 첸중수의 견해가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흥미롭다. 첸지보 저서의 출판시기와 첸중수 서평의 발표시점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이 부자(父子) 관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첸중수의 문학사관 형성에 있어 부친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는 바이다.
- 39) 宗廷虎, 陳光磊, 馮廣藝主編, 『錢鍾書修辭學思想演繹』, 濟南, 山東文藝出版社, 2006, 195쪽 참고.

언지'와 '문이재도'의 문학사적 현상을 대할 때 발생하는 주관적 사유와 감정을 (첸중수 자신이 말한 것처럼) '조절'(control)하는 것이 중국 전통의 문학비평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상술한 논의에서 우리는 첸중수의 문학사관을 이루는 주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저우쥬런의 문학사관과의 원활한 비교를 위한 일환으로 1933년에 발표된 평론 「中國文學小史序論」의 일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문학', '문학사' 및 '문학비평'의 정의를 둘러싸고 문학 발전의 근원, 문체의 개념, 문학사의 분기 및 문학과 역사, 문학과 사회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논한 평론이며, 그의 문학관(文學觀) 및 문학사관이 여실히 반영된 글로 평가받고 있다. 첸중수는 이 글에서 '언지'와 '재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중국의 평론가들은 오래전부터 제재와 내용에 얽매었다. 옛 사람들이 중시했던 재도(載道)는 현 사람들이 일컫는 언지유물(言之有物)이며, 옛 사람들이 중시했던 언지(言志)는 현 사람들이 말하는 서정(抒情)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유사하니 그것의 실(失)을 따져보면 모두 예(藝)를 논할 때 제재(題材)와 체재(體裁) 혹은 형식을 이원화한 바람에 양자를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문예 감상 의 관점에서 말과 내용은 합쳐지는 것이다. 말은 곧 내용이고, 겉은 곧 안이다. 말을 제외하고 내용만 추구한다면 내용을 가리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sup>40)</sup>

상기 인용문에서 첸중수는 중국 전통문학비평에서 다루었던 '언'(言)과 '물'(物)의 이원론적 전통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문예의 제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 첸중수 자신의 학문적 입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는 소위 예술의 형식과 내용은 대립개념으로 여겨왔던 역대 중국 전통문학비평의 문제를

40) “蓋吾國評者，夙囿於題材或內容之說——古人之重載道，今人之言‘有物’，古人之重言志，今人之言抒情，皆魯衛之政也。究其所失，均由於談藝之時，以題材與體裁或形式分爲二元，不相照顧。……且文藝鑒賞之觀點論之，言之與物，融合不分；言即是物，表即是裏；舍言求物，物非故物。” 錢鍾書，「中國文學小史序論」，《寫在人生邊上：人生邊上的邊上石語》，103-105쪽.



지적,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명하며 학문적 대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즉, 문예를 논함에 있어 그것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순수예술론에 치우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이는 「중국신문학의 원류」서평의 핵심과도 상통하고 있으며, 동시에 ‘문학’을 본위(本位)로 삼았던<sup>41)</sup> 그의 문학사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첸중수의 서평 발표 후 저우쥘런은 그가 발표한 몇몇 문장에서 첸중수가 반박한 문제에 대해 몇 차례 해명을 내놓았는데, 주요 내용은 하단의 인용문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내가 말한 ‘언지’와 ‘재도’의 구분은 한시적으로 언급한 주장이다. 그러나 ‘시언지’와 ‘문이재도’의 경우 시문(詩文)이 뒤섞여 있으며, ‘지’(志)와 ‘도’(道) 사이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기에 쉽게 뒤엉킬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한 **즉흥(卽興)과 부득(賦得)**은 가볍게 말한 듯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양자(‘언지’와 ‘재도’를 가리킴)의 특징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sup>42)</sup>

내가 그 당시에 이 두 가지 명칭(‘언지’와 ‘재도’를 가리킴)을 쓸 때 확실히 주관적이었으며, 명료하게 논하지 못하였다. 내 생각에는 언지는 시경을 대표하는 것이라 여겨지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위 ‘지’(志)는 시인 각자의 정감을 의미하며, ‘재도’는 당송 문장(唐宋文)을 대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道)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들의 공통적인 교의(教義)이다. 따라서 양자는 절대 상통할 수 없다. 지금도 뒤엉켜 있다고 여겨진다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자신의 도를 신는 것이 곧 언지이고, 타인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곧 재도이다.**<sup>43)</sup>

41) “乃在考論行文之美，與夫立言之妙，體裁之大小新陳，非所思存。辨鏡思想之是非，雖從鄙心所好，而既標名文學史，則宜‘以能文爲本’，不當‘以立意爲宗’。” 錢鍾書，「中國文學小史序論」，《錢鍾書集》，100쪽 및 愛默著，『錢鍾書傳稿』，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2，106쪽 참고.

42) “我這言志載道的分派本是一時便宜的說法，但是因爲詩言志與文以載道的話，彷彿詩文混雜，又志與道的界限也有欠明瞭之處，容易引起纏夾……這裏所說卽興與賦得，雖然說得較爲遊戲的，却很能分清這兩者的特質。” 周作人編選，『中國新文學大系散文一集』導言，上海，上海文藝出版社，2003，11쪽.

43) “我當時用這兩個名稱的時候的確有一種主觀，不會說得明瞭，我的意思以爲言志是代表《詩經》的，這所謂志即是詩人各自的情感，而載道是代表唐宋文的。這所謂道乃是八大家共通

이전에 내가 우연히 중국문학의 변천에 대해 여기에는 언지와 재도의 두 파가 서로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후에 양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지라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자신의 도를 신는 것도 언지이고, 타인의 뜻을 말하는 것은 재도이다.** 지금 생각해내기로는 성(誠)과 불성(不誠)으로 분별하는 게 더 분명할 것 같다.……**만약에 성(誠)이 있다면 재도와 언지는 동일하며,** 중국의 사상으로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학문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바, 언지든 재도이든 모두 세상에 유용할 수 있기에, 이러한 주장 역시 상당히 일리 있는 듯하다.<sup>44)</sup>

상술한 인용문에 근거했을 때 저우쥘런의 관점은 『중국 신문학의 원류』의 주요 논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오히려 ‘언지’와 ‘재도’에 대해 재해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적’인 문학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겠다.

첫째, 저우쥘런이 ‘즉흥’(卽興)과 ‘부득’(賦得)이라는 문학용어를 통해 ‘언지’와 ‘재도’를 해명한 점이다. 저우쥘런은 일찍이 “언지파의 문학은 ‘즉흥적인 문학’, 재도파의 문학은 ‘부득적(賦得的)인 문학’으로 부를 수 있으며, 고급의 유명한 문학작품은 모두 즉흥 문학이다.”<sup>45)</sup>라고 밝힌 적이 있다. 주지하듯이 ‘즉흥’과 ‘부득’은 모두 문학 창작의 용어로서, 그 중에서도 ‘부득’은 중국 과거(科擧) 시험에서 옛 시인들의 유명한 시나 성어에서 제목(題目)을 뽑은 후 제목 앞에 항상 붙었던 용어임과 동시에, 문학 창작에 있어서는 주어진 조건

的教義。所以二者是絕不相同的。現在如覺得有點纏夾，不妨加以說明云：凡載自己之道者卽是言志，言他人之志者卽是載道。”周作人，「自己所能做的」(『宇宙風』，1937.6)。鍾叔河編，『周作人文類編本色』，長沙，湖南文藝出版社，1998，145쪽.

44) “從前我偶講中國文學的變遷，說這裏有言志載道兩派，互爲消長，後來覺得志與道的區分不易明顯劃定，遂加以說明云，載自己的道亦是言志，言他人之志卽是載道，現在想起來，還不如直截瞭當的以誠與不誠分別，更爲明瞭。……如有誠，載道與言志同物，又以中國思想偏重入世，無論言志載道皆希望於世有用，此種主張似亦相當的有理。”周作人，「漢文學的前途」(『藥堂雜文』，1943.7.20)。止庵編，『周作人自編文集藥堂雜文』，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2002，31쪽.

45) “言志派的文學，可以換一名稱，叫做‘卽興的文學’，載道派的文學，也可以換一名稱叫做‘賦得的文學’，古今來有名的文學作品，通是卽興文學。”周作人著，「清代文學的反動(上)——一八股文」，『中國新文學的源流』，38쪽.

과 일정한 형식 하에 ‘타인’의 사상과 견해를 표현하는 것<sup>46)</sup>을 의미한다. ‘부득’의 사전적 의미 및 창작에서의 활용 양상을 토대로 비추어 봤을 때, 저우쥘런이 ‘부득’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점은 (‘즉흥’에 상응하는) ‘언지’에 대한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sup>47)</sup>가 충분히 엿보이는 바이다.

둘째, 저우쥘런이 ‘성’(誠)과 ‘불성’(不誠)의 유교 개념을 통해 ‘언지’와 ‘재도’를 해명한 점이다. 미시적 측면에서 저우쥘런이 언급한 ‘성’(誠)과 ‘불성’(不誠)은 각각 ‘언지’와 ‘즉흥’, ‘재도’와 ‘부득’을 가리키는 바, 이러한 중국의 전통 사상과 가치관은 적어도 중국 신문학의 근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저우쥘런에게 문학적, 학문적으로 유용한 영감(靈感)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거시적 측면에서 저우쥘런이 제기한 ‘성’(誠)과 ‘불성’(不誠)은 유가(儒家) 사상의 핵심인 인본주의(人本主義)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우쥘런은 『我的雜學』(1944)에서 “나는 고금(古今)과 중외(中外)의 각 방면에서 여러 영향을 받았다.……지식과 정서 두 방면은 각각 서양과 일본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의식 부분은 완전히 중국적인데, 외래의 영향으로 무슨 변화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중국의 의식을 표준으로 삼아 외국의 영향을 저울질하였다. 나는 이것을 줄곧 유가정신이라고 불렀다.”<sup>48)</sup>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46) 이에 대해 저우쥘런은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서 “부득의 문학은 우선 제목이 있어야 하고, 그런 후에 제목에 따라 글을 짓는다. 자신이 생각해낸 제목으로 글을 지을 때는 비교적 쉬우나, 과거 시험에서 뽑힌 제목으로 글을 지으려면 제한이 많다.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없으며, 제목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賦得의文學是先有題目, 然後再按題作文。自己想出的題目作時比較容易, 考試所出的題目便有很多限制, 自己的意思不能說, 必須揣摩題目中的意思。”)라고 언급하였다. 上同, 39쪽.

47) 혹자는 저우쥘런이 ‘언지’와 ‘즉흥’을 내세워 자신의 개성을 더욱 명확히 표현하고, 순수 문학을 저해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가능하였다고 밝혔다. 徐從輝編, 『周作人研究資料』(下),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4, 32쪽 참고.

48) “我從古今中外各方面都受到各樣影響……在知與情兩面分別承受西洋與日本的影響爲多, 意的方面則純是中國的, 不但未受外來感化而發生變動, 還一直以此爲標準, 去酌量容納異國的影響。這個我向來稱之曰儒家精神。” 鍾叔河編, 『我的雜學』, 『周作人文選(1937-1944)』, 廣州, 廣州出版社, 1995, 524쪽.

이처럼 저우쥬런이 유가정신을 핵심으로 삼고, 그 중에서도 유가의 ‘인본주의’를 인간의 정신적인 신조로 삼아야 한 것에는 인상(印象)을 관념(觀念)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관념을 인상으로 바꾼 것이며, 그의 관념은 추상적인 공상이 아니라 ‘개조’<sup>49)</sup>된 유가정신, 더 나아가 ‘개조’된 개인주의 정신<sup>50)</sup>으로도 볼 수 있겠다.

상기 논의를 통해 중국 신문학의 ‘근원’을 둘러싼 저우쥬런과 첸중수의 관점이 매우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마지막 장절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3. 나오는 말

본 논문에서는 저우쥬런의 『중국 신문학의 원류』와 첸중수의 서평 「중국 신문학의 원류」의 상호 독해 및 비교를 통해 그들의 문학사관을 읽어냄으로써 당시 신문학의 ‘근원’에 대한 논쟁에 대해 조명해보았다. 두 사람 모두 민국 시기 문단과 학계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이었으며, 문학적, 학문적, 사상적으로 각자의 개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하였지만, 신문학의 ‘근원’에 대한 문학사관의 충돌은 각자 상이한 ‘문체관’(文體觀)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중국 신문학의 원류』에 반영된 저우쥬런의 문학사관은 ‘개인주의’, ‘인본주의’ 및 문학에 대한 ‘심미주의’를 그 기저로 삼고 있다. 저우쥬런에게 있어서 소위 ‘문체’는 개성과 개인적 세계관의 반영이었던 바, 그는 옛 사람들의 문장을 논함에 있어 그 안에 담겨있는 ‘주관적’, ‘인상적’ 가치를 중시했던 것

49) 여기서 언급한 ‘개조’에는 당시 정치적 격동과 사회 변화에 따른 저우쥬런의 사상 경향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日]木山英雄, 「周作人—思想與文章」, 孫郁, 黃喬生主編, 『回望周作人: 研究述評』,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 101쪽 참고.

50) 쉰위 지음, 김영문·이시환 옮김, 『루선과 저우쥬어런』, 서울, 소명출판, 2005, 271쪽 참고.

으로 판단된다. 이에 근거했을 때 명말 문인들의 문장들과 그들의 문학적 이상은 저우쥘런의 취향에 상당히 부합하였으며, 그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었던 일종의 도구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언지’의 전통적 문학관은 그에 의해 새롭게 재조명, 재해석되어 오사 신문학과 상통하는 접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반면에 첸중수는 신문학의 ‘근원’을 논함에 있어 자신의 날카로운 비평가적 기질을 감출 수 없었다. 첸중수에게 있어 신문학의 ‘근원’은 문학사적 현상의 하나임과 동시에 학문의 탐구대상이었다. 이러한 연유에 기인했을 때, 동일한 문학사적 현상을 탐색하고 그것을 논함에 있어 첸중수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학술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적 추론’을 중시한 것 같다.<sup>51)</sup> 다시 말해 첸중수는 ‘문인’(writer)의 입장보다는 ‘학자’(scholar)의 입장에 서서 저우쥘런의 문학사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 비평은 기존의 문예비평이 지닌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명’이 주요 목적이었던 바, 이는 특정 대상에 국한된 문학비평이 아닌 ‘총체적’인 ‘문예비평’<sup>52)</sup>을 추구했던 첸중수의 지향점과도 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우쥘런과 첸중수의 ‘신문학’ 논쟁은 각기 상이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기에 양자의 시비(是非)와 호불호(好不好)를 밝히는 건 그다지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바라보고 향후 관련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신중한 판단을 해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우쥘런과 첸중수의 문학사적 논쟁은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51) 한지연, 「錢鍾書의 비평적 글쓰기와 『管錐編』 연구를 위한 小考」, 『중국현대문학』 제 67호, 2013, 43쪽 참고.

52) 첸중수는 ‘General Literature’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비교문학관(比較文學觀)을 피력한 적이 있다. 張隆溪, 「錢鍾書談比較文學與“文學比較”」. 楊周翰, 樂黛雲主編, 『中國比較文學年鑒』(1986),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7, 50쪽 참고.

## 參考文獻

### <1차 문헌>

- 周作人著,『中国新文学的源流』,上海,华东師範大學出版社,1995.  
 周作人編選,『中國新文學大系·散文一集』,上海,上海文藝出版社,2003.  
 止庵編,『周作人自編文集·藥堂雜文』,石家庄,河北教育出版社,2002.  
 鍾叔河編,『周作人文選(1898-1929)』,廣州,廣州出版社,1995.  
 鍾叔河編,『周作人文選(1930-1936)』,廣州,廣州出版社,1995.  
 鍾叔河編,『周作人文選(1937-1944)』,廣州,廣州出版社,1995.  
 鍾叔河編,『周作人文類編·本色』,長沙,湖南文藝出版社,1998.

- 胡適編選,『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上海,上海文藝出版社,2003.  
 [明]江盈科纂,黃仁生輯校,『江盈科集』(一),長沙,岳麓書社,2008.  
 錢基博著,『現代中國文學史』,長沙,岳麓書社,1986.  
 錢鍾書著,『寫在人生邊上·人生邊上的邊上·石語』,北京,三聯書店,2002.  
 錢鍾書著,『七綴集』,北京,三聯書店,2002.  
 朱自清著,『詩言志辨』,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4.

### <2차 문헌>

- 쑤위 지음, 김영문·이시환 옮김,『루쉰과 저우쯔어런』,서울,소명출판,2005.  
 한길사 편집실 엮음,『가자 고진의 숲으로』,과주,한길사,2008.  
 愛默著,『錢鍾書傳稿』,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2.  
 陳子謙著,『錢學論』,成都,四川文藝出版社,1992.  
 黃修己著,『中國新文學史編纂史』,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7.  
 [日]木山英雄著,趙京華編譯,『文學復古與文學革命——木山英雄中國現代文學思想論集』,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4.  
 孫郁著,『魯迅與周作人』,北京,現代出版社,2013.  
 孫郁,黃喬生主編,『回望周作人:研究述評』,開封,河南大學出版社,2004.

- 陶明志編, 『周作人論』, 上海, 北新書局, 1934.
- 徐从輝編, 『周作人研究資料』(上),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4.
- 徐从輝編, 『周作人研究資料』(下),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4.
- 楊周翰, 樂黛雲主編, 『中國比較文學年鑑』(1986),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7.
- 止庵著, 『周作人傳』, 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9.
- 宗廷虎, 陳光磊, 馮廣藝主編, 『錢鍾書修辭學思想演繹』, 濟南, 山東文藝出版社, 2006.
- 김미정, 「周作人の 전통문학관: '載道'와 '言志'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제22집, 1994.
- 한지연, 「錢鍾書의 비평적 글쓰기와 『管錐編』 연구를 위한 小考」, 『중국현대문학』제67호, 2013.
- 한지연, 「통섭의 시학 - 錢鍾書 『詩可以怨』의 비교문학적 접근」, 『한중언어문화연구』제42집, 2016.

Abstract

The argument between Zhou Zuoren and Qian Zhongshu o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 A research of *The origin of Chinese New Literature* –

Han, Ji-yeon

This paper was performed to study of *The origin of Chinese New Literature*中國新文學的源流 by Zhou Zuoren周作人's theory of literature history, and a argument of Chinese New Literary History with Qian Zhongshu錢鍾書's negative reviews about the origin of Chinese New Literature. Based on this point, This paper is consisted of foreword, two body chapters, conclusion and the references.

Chapter one gave an introduction to this paper and reviewed the former research.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in Chapter two, tried to discuss about the viewpoint of Zhou's *The origin of Chinese New Literature*. As everyone knows that ideals言志 and moral載道 are two important concepts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Zhou was traced back to the end of the Ming dynasty and mainly intended to indicate the mainstream of Chinese Literature, For this reason, Zhou's *The origin of Chinese New Literatur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which is the important thing about the origin of Chinese New Literature, which intellectual aspirations have been directly reflected in his writing.

In Chapter three, tried to analyze about the viewpoint of Qian Zhongshu's review on Zhou's *The origin of Chinese New Literature*. Analysis showed that Qian through his literary criticism, tried to clarify the problem of the Chinese New Literature, even previous literary criticism. Thus, and tried to clear the difference from Zhou's viewpoint of literature. I think it is not as the object of Chinese literary criticism, but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criticism, to break through to the other side, Qian Zhongshu who tries to find new and efficient ways to do that work.

By comparison, Zhou Zuoren & Qian Zhongshu used their so-called academic



literacy, tried to approach a subject from the literary and scholarly point of view. I think the argument between Zhou Zuoren & Qian Zhongshu o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provided new insight into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clude many faces of theory and criticism in the study of Chinese New Literature.

Key words: Zhou Zuoren, Qian Zhongshu, Chinese New Literature, ideals, moral, Kung-an school, Jingling school, literature movement

투 고 일 : 2017. 4. 10. / 심 사 일 : 2017. 4. 15.~ 2017. 5. 15. / 게재확정일 : 2017. 5. 20.